



제목	비잔티움: 어느 중세 제국의 경이로운 이야기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글항아리
발행일	2010. 10. 18.
저자	주디스 헤린 이순호 옮김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671
ISBN 또는 ISSN	978-8993905380

내용 요약

이 책은 기존에 평가절하 되어 왔던 비잔틴제국의 잊혀진 역사와 독특한 문화와 코스모폴리탄적 사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비잔틴은 서방과 이슬람 중세사회와 달리, 프랑크 왕국 카롤링거 왕조의 샤를마뉴 대제와 아랍제국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하룬 알 라시드의 주 활동시기인 800년 무렵에 이미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제국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오랜 역사를 가진 비잔틴문화를 제약인 동시에 힘의 원천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다. 저자가 보기에 비잔틴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비잔틴이 중세 초기 서방 기독교의 보루였다는 점이다. 저자에 의하면 비잔틴제국이 중간에서 이슬람의 팽창을 저지한 덕분에, 작은 지역 단위의 서방 기독교 세력들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힘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세 서방 기독교 성직자들과 통치자들은 동방 기독교 문명의 비잔틴제국을 도외시켰으며, 그러한 영향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비잔틴제국의 실제와 작동방식 그리고 그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유산과 기독교가 결합된 비잔틴만의 독특한 기독교의 모습을 고찰한다. 또한 저자는 성상에 대해 헌신적인 태도를 보인 중세 비잔틴 여성들을 조명하고, 그리스와 키프로스섬과 콘스탄티노플 소재 칼렌데르야네 모스크 등의 유적 발굴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지역에 산재한 중세 비잔틴의 예술과 건축물을 직접 탐사하여 비잔틴의 모습을 그려낸다. 기존 연구서와 개론서의 패턴과 달리, 저자는 특정 사건과 인물과 기념물을 선별하여 비잔틴 역사의 기본 범주의 틀에서 그것들의 의미를 규명한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비잔틴 역사 1000년을 관통하는 기본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2부-4부는 비잔틴 사회를 보여주는 동일한 사건과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다.